

원희룡 장관, "경산시, 교통·물류 허브도시로 도약 지원"

- 22일 공공주택·철도 등 현안 사업장 찾아 적극 추진 강조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2일(수) 오후 경북 경산시를 방문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, 경산시가 영남권의 교통·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.

- 먼저, 원 장관은 경산시청에서 윤두현 의원, 조현일 경산시장,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안사업 간담회를 가지고, 대임공공주택지구, 진량하이패스IC, 경산역 KTX 정차 등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.
 - 대구·경북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하는 ‘파이(II)밸리 프로젝트’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에 대해, 원 장관은 “지역의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등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, 해제 요청 시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이어서 원 장관은 경산역을 방문하여 “내년부터 ITX-마음 열차 투입과 대구권 광역전철 개통으로 경산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 “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경산역 KTX 정차 확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- 또한, 원 장관은 '25년말 입주 예정인 대임공공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. 특히, 지역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“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을 뉴:홈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중형평형을 확대 공급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3. 11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